

새희망의 길

새희망의 길

VOL.30



현장24시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을 가다

기획특집
은퇴자들의 집은 고독, Next Job이 삼킨다

KTTU 카툰
경조사 때 알아두면 좋아요!

KTTU 리서치
10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빨간 옷의 IT천사들

다가가면 가까워집니다

12대 집행부가 어느새 3년차를 맞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2년 간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조합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임금 복지 향상에 힘쓰며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조합원과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현장이 살아있는 KT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대등한 경영 파트너로서 과감한 비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노사협의체 UCC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감싸 안으며 사랑받는 KT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 o n t e n t s

vol. 30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은퇴자들의 짙은 고독 Next Job이 살린다
KTTU Mate	12	KT에스테이트 노동조합 류재영 위원장
이슈 & 사회	14	사드보복 장기화 울상 짓는 IT업계
현장 24시	16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을 가다
KTTU 카툰	20	경조사 때 알아두면 좋아요!
KTTU 리서치	22	10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빨간 옷의 IT천사들
KTTU 클로즈업	24	KT 위즈 2017 시즌이 설렌다
토닥토닥	28	외롭다고? 동고동락하는 '반려 로봇' 시대가 온다
길따라 멋따라	30	조화와 공존의 나라, 타이완 자유여행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후기 및 퀴즈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2017년도 연간 성과급 지급계획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도 성과급 지급규모 및 지급일정을 확정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 적용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 A직, C직 및 Sales직 (청원경찰 포함)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연간 지급규모(단위 %)

- G직 : 750±125 (직책750±175)

- 2A직 : 475~2,150 (직책455~2,170)

- C직/Sales직: 전체 성과급 규모를 월 균등화(62.5%)한 후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지급

- 월별 지급일정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월별 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구수정 및 당선자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또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회계규정 제9조 각호에 근거하여 쟁의금, 신분보장금, 임단투대회비, 정책연구비, 선거운영비는 필수 예산에서 제외하고, 재정지립금과 상급단체비를 비롯한 예산배정 항목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동일하게 계속 배정하고, 중앙본부 및 지방본부 유지 필수예산으로 중앙본부비와 지방본부비는 계속 배정하되 중앙본부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2/3만큼 배정하기로 했다.

※ 개정된 지방조직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

제1차 임시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결과... 95.6% 찬성률로 규약 개정안 가결

2017년 4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2017년 제1차 임시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결과, KT노동조합 규약 개정(안)에 대해 조합원 18,164명 중 15,614명이 투표에 참가, 85.96% 투표율과 찬성 14,928표(95.61%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 규약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부별 대의원의 배정은 규약 24조에 따라 배정하며, 전국대의원 선출원인은 지부조합원이 200인 이하일 경우 지부별 1명, 지부조합원이 200인 초과일 경우 20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되,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Customer 부문 CSCT 공용 PC 대개체 추진

2017년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CSCT의 공용 PC 노후화 수량에 대하여 대개체를 추진한다. 또한 차후 전자 공용PC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노사협의를 통해 대개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내용

- ▶ 대개체 대상 : 지역본부 CSCT
- ▶ 대개체 수량 : 총 317대
 - 2010년도 공급분 255대(전량)

2017 제1차 중앙위원회의 열려, 지방조직운영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KT노동조합은 4월 18일(화)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위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규약 제4장 4절 36조에 의거해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규약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예산불성립 시 예산편성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방조직운영규정 개정사항에는 신설 2건, 수정 1건 등 규약개정에 따른 지부별 대의원 배정기준 변경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신설했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사항에는 신설 3건, 수정 2건 등

- 2013년도 공급분 199대 중 노후화 된 62대
- ▶ 대개체 PC 계약 기간 : 2017년 5월~2021년 4월까지(4년) 렌탈 계약

<대개체 PC 사양>



- 추진일정 : 2017년 4월 24일부터 순차적 공급

2017년 상반기 창업지원 휴직 시행

재직 중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개발 및 경력 전환을 체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창업지원 휴직을 시행한다.



- 지원자격 : 실 근무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과전 등 제외)
 -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은자(휴직발령 기준: 2017. 5. 1)
 - 교육 과전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심사
 - 1차 : 사업계획서의 사업성, 준비도, 적정성 및 창업가 정신 등 평가
 - 2차 : 1차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 등 고려 적합/부적합 검증
- 휴직기간 및 처우
 - 휴직기간 : 1.5년 ~ 3.5년(의무휴직기간:1.5년, 6개월 단위 연장)
 - 급여 : 최초 1년간 월 기준급+역량급 100%만 지급, 이후 무급휴직
- 신청위치 : ERP > 인사정보 > 휴직/퇴직신청 > 창업지원휴직신청

'5월 가정의 달' 맞이, 2017년 가족 친화 프로그램 시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2017년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 KT Wiz-Day (5월~6월)

- 선정방법 : 지역본부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정
 - 고객본부, NW운용본부 적의 선정
- 지원내용 : 가족 단위 야구관람
 - 테이블석 입장권, 간식제공
- 선정대상 : 100가족

- 수도권 50가족/지역 50가족

2. 우리가족孝-Day (5월)

- 선정방법 : 지역본부 별 노사간 협의 통해 선정
 - 고객본부, NW운용본부 적의 선정
- 지원내용 : 수련관 출장 생활입소
 - 가족체험 프로그램, 과일바구니 증정
- 선정인원 : 50가족 (본인필참)
 - 3대가족 참여, 고령자/다자녀 우선
 - 장애인 자녀 가족 대상 별도 추가(지역본부별 1가족)
- 시행시기 : 1기(5.17 ~ 5.19), 2기(5.22 ~ 5.24), 3기(5.24 ~ 5.26)
 - ※ 지역본부별 배정T/O 인원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실천 강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1분기 노사협의회의 의결(2017.3.29)사항 후속 조치로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정식



퇴근을 실천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

- ▶ 직책자의 강력한 이행 의지와 술선수법을 통한 활성화
 - 근무 시작 때부터 정식퇴근 강조, 18:30까지는 직원 퇴근 확인 후 퇴근
- ▶ 부서별 실정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가족 사랑의 날 활성화 위해 적의 시행
 - 예시) 업무 종료물 알리는 굿바이 노래 송출, 일괄 소등(Earth Hour 동참) 등
- ▶ 진정한 가족사랑 실천문화 정착 노력
 - 퇴근 후 회식, 모임, 음주 등 늦은 귀가 지양
- ▶ 부득이한 경우 18시 이후, 필수 근무자는 통합 사무실에서 모여 근무하도록 조치
 - 건물 단위로 운영하되, 대규모 사옥은 층별 운영
- 공통 추진사항
 - ▶ 가족 사랑의 날, 정식 퇴근을 위한 자체 안내방송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 2회)
 - ▶ 근무시간 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 근무
 - ▶ 18:30분 실내 조명 전면 소등(에너지 절감을 병행한 Earth Hour 동참)

2017년 KT 대리점 개설제도 시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대리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임직원에게 운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T 대리점 개설 제도를 노사간 협의를 통해 2016년도 1차 시행에 이어서 2차로 시행한다.

■ **선발 및 운영 프로세스**

- ▶ 모집공고/접수 → 1차심사/선발 → 교육훈련(3개월) → 2차심사/선발 → 대리점 개설/운영(1년, 휴직) → 복귀 또는 지속운영
- ▶ 2차선발 후 1년간 휴직 상태로 대리점 개설/운영 (대리점 창업지원 휴직)
- ▶ 휴직종료 후 본인희망에 따라 의원면직 후 지속 운영 또는 원소속 복귀 가능

■ **모집요강**

- ▶ 지원자격 : 실근속기간 10년 이상 임직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직급이 과장급 이상인 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휴직, 교육파견 등 제외)
 - 교육 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 지원방법 : 지원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심사기준 : 영업력(영업경험 포함) + 사업계획 + 영업의지 등
- ▶ 심사방법 : 2차에 걸친 역량 검증 후 최종 선발
 - 1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면접을 통해 1차 선발
 - 2차 : 1차 선발자限 교육훈련 3개월 후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면접

■ **운영사항**

- ▶ 교육훈련(3개월) : 1차 선발자限 KT M&S 재적전출 후 3개월간 교육
- ▶ 대리점 창업지원 휴직(1년) : 2차 선발자限 1년간 휴직상태로 대리점 운영
- ▶ 휴직 기간 중 대리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본인에게 귀속

■ **추진일정**

- ▶ 1차 선발자 발표 : 2017.04.21(금)
- ▶ 교육훈련 : 2017년 5월 ~ 8월
- ▶ 2차심사 및 최종선발 : 2017년 8월 중순
- ▶ 대리점 개설 및 운영(휴직) : 2017년 8월말 ~
 - ※ 지원서류 등 심사, 선발,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 신청안내

KT노동조합은 임직원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교육 지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특화된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임직원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대상** : 임직원 중등자녀 및 예비중학생(6학년)
 - 기존 수박씨 이용자 : 1년간 자동 연장
 - 신규 신청자 : 신청화면에서 수박씨.com 회원가입 후 KT직원 인증
- **제공사항** : 중등 교과과정 온라인 교육(수박씨닷컴, 중등 온라인강의 무한수강 가능)
 - 출석률 및 이용시간 우수자의 경우 족보닷컴 기출문제 제공

- 학습관리서비스(튜터서비스) 지원
- 우수 장학생 선발을 통해 장학금 지급 등 학습지원

■ **신청방법 예시**

- 1단계 : KT노동조합 홈페이지 > 나눔공간 > 무료인터넷교육 >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2단계 : 수박씨.com 접속 > 수박씨 회원가입 > 가입한 계정에 대해 KT직원 인증 후 서비스 이용가능

■ **문의사항**

- KT노동조합 교육국장 ☎ 031-727-2844
- 경영지원담당 복지팀 ☎ 031-727-4037

2017년 1분기 노사협의회... 안식년휴가 사용 활성화, 긴자금 대부시기 변경 등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8일(화) 분당 본사사옥 17층 회의실에서 2017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안식년 휴가 사용 활성화' 등 노동조합이 요구한 안건 7개, 회사측 요구 안건 1개 등 총 8개 안건에 대해 협의·의결했다. 노사는 먼저 2017년 2월 경영현황과 1/4분기 지방 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안건은 ▲사택의 중장기적 개선 ▲가족 사랑의 날 PC-Off 제도 도입 ▲긴급가계자금 대부시기 변경 ▲공용 PC 대개체 ▲측정기 및 공기구 대개체 ▲안식년 휴가 사용 활성화 ▲조합원 건강검진 수가 인상 등이며 회사 측 안건은 ▲2017년 4대 복지공간 개선이다.

협의 결과, ▲사택의 중장기적 개선은 노사합동 실태조사 후 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가족 사랑의 날 PC-Off 제 도입은 노사 양쪽의 견해차로 시행하지 않되, 단 가족 사랑의 날 정시퇴근 적극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사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가계자금 상반기 대부시기 변경은 입학 시즌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기존 1월에서 2월로 변경하여 시행, ▲공용 PC 대개체와 ▲측정기 및 공기구 대개체는 노사합동 실태조사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식년휴가 사용 활성화와 ▲2017년 4대 복지공간 개선안은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존경받는 1등 KT 분과위원회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7일(월) KT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존경받는 1등 KT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직원 대리점 개설 2차 시행(안) ▲네

트워크부문 해외

견학 시행(안) ▲방진마스크(C부문·네트워크부문) 지급계획(안) ▲가족친화 프로그램 시행(안) ▲평창동계올림픽 임직원 자원봉사 선발(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조합은 현장의견 중 조합원의 요구가 높은 사항을 추려내어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조사하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연구 검토, 모색해갈 계획이다.

노사협의회 안건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조사



KT노동조합은 1/4분기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현장과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현장의견 조사를 실시 했다.

이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조사하여 불만사항 해소를 통한 조합원의 직무 및 조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분기별 노사협의회 안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UCC 징검다리 봉사활동 전개... 독거 어르신들 대상 따뜻한 힐링과 온천여행



KT노동조합과 기업 간 노사협의체인 UCC는 3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이를 동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UCC 징검다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살피고 따뜻한 힐링과 추억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경로효친 함양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KT노사를 비롯하여 UCC 회원

사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SH공사 노사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꽃식물원 둘러보기를 시작으로 온천 즐기기, 만찬 및 작은 음악회 개최,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치유의 시간 갖기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최장복 조직실장은 어르신들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한 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훈훈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고 밝혔다.

제109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노동조합, 한국노총 주최 기념식 참가

KT노동조합 전국 여성국장들은 3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09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한국노총 기념식에 참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현장에서 여성은 나쁜 일지리와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워킹맘에게 주어진 일·가정 양립은 풀지 못할 숙제와도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장으로서 남성과 여성, 고령자와 청년,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 현실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며 우리사회의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포부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사용 및 노동시간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보육, 요양 등의 사회적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본사지방본부 최윤수 여성국장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 노동자의 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본부 여성국장·조직국장 합동 워크숍 개최

노동조합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3월 7일(화)부터 8일(수)까지 도고수련관에서 전국 여성·조직국장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전국 여성·조직국장 회의에



서는 지방본부별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향후일정 공유 등,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다룬 2017년 조직사업 방향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은퇴자들의 짙은 고독 넥스트 잡(Next Job)이 살린다

'60', 옛날 같으면 한갑잔치를 열어 공경의 대상이었을 나이.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60대 은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2030세대들의 힘없는 라이벌이자 회사에서 뒷방 늙은이로 치부되는 은퇴자들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은 아니어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들어와 열심히 일한지 30여 년. 딴 생각할 겨를 없이 한 곳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것도 모자라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모진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다. 회사를 위해 청춘의 대부분을 바쳐왔건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예비 은퇴자라는 딱지와 통장에 찍힌 퇴직금 몇 푼이 전부다.

군대에서 '뭐든지 잘하는 김 상병'이었고, 회사에선 '척척 박사 김 과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는 그 누구도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점점 우울해진다. 주름살과 흰머리가 늘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큼은 여전한데 다시금 씩씩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대학동창 최 부장은 아내와 함께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고,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한 동네친구는 치킨가게를 열었지만 1년도 못가서 문을 닫았다. 회사 선배 박 상무는 그 많은 퇴직금을 기부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연금보험을 들며 노후를 위한 나름의 준비를 해온 나였지만 돈만으로 퇴직 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직업을 통해 퇴직 후 인생을 그려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선생님은 트럭 운전이 부끄럽지 않다

"펜대 굴리는 일만 해오던 제가 정년 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운전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출근할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결국 마음을 잡는 데만 5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올해 63세인 최 씨는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후 얼마 전 트럭 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해 합격해 몇 차례 복덕방에서 일을 했지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결국 트럭 운전을 선택했다고 한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일에 제법 익숙해지고 아는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대하게 됐다"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고령화연구패널을 분석한 결과,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한 60대는 전체의 16.4%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재취업자의 30.1%가 은퇴 후 첫 일자리를 임시일용직으로 얻은 것에 비하면 김 씨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은퇴준비를 잘한 셈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 지난해 하반기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률은 사상 최초로 20대를 앞질렀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본격적인 출발선인 1955년생 양띠 인구는 올



해 만 62세를 맞아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세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대부분이 지난 4~5년 사이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계속되자 명절풍경도 사뭇 달라졌다. '너 언제 취직할래?', '시집, 장가는 갈 생각이야?' 등 20대에게 쏟아지던 가족들의 관심사는 '퇴직 후 계획은 세웠어요?', '재취업하실 생각은 없어요?' 등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각자 직업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땀 흘리던 은퇴남들은 이제 뚜렷한 직업이 없이 명절날 가족을 피하는 20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기대수명이 늘수록 고독도 깊어진다

환갑이 동네의 큰 잔치였던 70년대 당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60세였다. 그러나 지금은 80세로 무려 20년이 늘었다. 통계청 추

계대로라면 2050년이면 기대수명이 10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금 40, 50대는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을 것 같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기대수명처럼 과연 은퇴연령 또한 늘어나고 있을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음'이다. 은퇴연령은 법적으로 60세까지 되어 있지만 40대 말이 되면 이미 사실상 직장에서 원하던 원치 않든 짐을 싸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노동자가 부업이 아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연령은 54세다. 이들의 자녀 세대는 '삼포 세대'로 은퇴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해 명절날 친척들 눈치를 봐야 하는 부모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취업과 결혼이 이전 세대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동시에 '장수 리스크', '평생 현역' 등의 용어가 등장해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은퇴 이후 여전히 정규직을 원한다

청년실업을 호소하고 있는 자식들과 더불어 은퇴를 앞둔 부모들 역시 취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은퇴자들의 두 번째 취업은 '넥스트 잡'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기관과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은퇴자들이 가장 절실해하는 문제는 '일자리'다. TV에선 은퇴의 가장 필요한 요소가 보험, 재무설계, 연금 등 금융상품이라고 목놓아 외치지만 실상 은퇴자들이 원하는 삶의 핵심은 일 그 자체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수도권지역 50대 예비 은퇴자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60세 정년 의무 나이보다 10년 정도 더 많은 나이이다. 80세까지가 24.2%로 뒤를 이었고 65세까지가 18.7%였다. 또한 '넥스트 잡'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재취업이 5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창업(22.7%), 귀촌(21.3%)이 뒤를 이었다. 넥스트 잡으로 우선시하는 조건은 고용안정(52.3%), 여가시간(18.3%), 적성(16%), 연봉 수준(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은퇴자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은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가 아닌 조직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싶다는 의미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한 '재취업 시 원하는 고용 형태'에 대해 정규직이 63%로 절

대 다수를 차지했다. 프리랜서(22.3%), 비정규직(7.3%), 아르바이트(3.7%), 기타(3.3%)가 뒤를 이었다. 종합해 보면 '70세까지 재취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얘기가. 소득 역시 현재의 연봉을 기준으로 '70~80% 수준'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 50~70%(30%), 80~100%(21.3%), 50% 이하(7%), 100% 이상(5.3%)으로 조사됐다. 이는 창업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창업 후 기대 수익' 질문에 70~80% 수준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잘나가던 부장님이 백수로 전락하는 현실

그렇다면 예비 은퇴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 절박함에 비해 취업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넥스트 잡을 위한 준비'에 대해 없다(57%)가 있다(26.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은퇴 이후 삶을 불안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잘 되겠지'하는 막연한 낙관으로 일관한다는 얘기가. 은퇴자들의 이러한 막연한 기대는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막연한 장래희망과도 비슷한 모양새다.



여기에 한때 여의도에서 잘나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다. 그는 52세에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고 은퇴한 후 자신 정도 스펙이면 금융사 어디서든 불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벌써 1년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백수 신세로 전락했다. 다른 친구 중 한 명은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대부분을 쓰고 말았다.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막연히 은퇴를 한 샐러리맨들의 흔한 경우다.

은퇴 후 직업에 대해 막연한 핑크빛 전망을 하는 데는 '낮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눈높이를 낮출 수 없는 데는 가족도 한몫 거들고 있다. 가족들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한숨을 서성이는 이들이 있다면 필시 퇴직 사실을 알렸을 때 한숨을 푹푹 쉬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큰 경우다. 이제 남편과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려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가족들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넥스트잡이 자존감을 올린다

중요한 것은 '넥스트 잡'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다. 은퇴 후 넥스트잡이 필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찍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60대 이후의 삶을 위해서 미리부터 10년 전인 50대부터 계

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 시작점으로 앞선 30년 삶에서 적용했던 기준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그동안 일하면서 체면, 교만,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 미련, 허영심, 두려움, 힘든 일을 피해가려는 비겁함 등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세상에는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조언들이 넘쳐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며 핵심은 바로 '인간관계'로 귀결된다.

사실 은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득 이전에 인간관계의 단절을 꼽을 수 있다. 은퇴 이후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인간관계의 성취욕을 해소해주었던 직업이란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시니어가 되면 그 자존감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대기만성으로 일할 수 있는 60대엔 직업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70대 이후엔 배움과 사교를 통해 관계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제 '넥스트 잡'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하루 세 끼 밥 먹는다고 해서 '삼식이', 쓸리지 않는 낙엽처럼 아내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젖은 낙엽'이라 불리는 것이 은퇴 후 대한민국의 아버지상이라면 이제 그 이미지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넥스트 잡이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첫 걸음은 은퇴남 자신들의 노력이며 '인식의 전환'이다.

약속하고 책임지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갑니다!



KT에스테이트 노동조합 2대 집행부
류재영 위원장

KT에스테이트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당시를 류재영 위원장은 잊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를 교차시키며 탄탄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시간은, 이제 조합원들의 신뢰와 높은 만족도로 보상받고 있다. KT에스테이트를 향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며, 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발전과 해법을 모색해가는 그를 만났다.

노동조합 설립 5년차,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다

배려와 신뢰. 류재영 위원장을 대변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단어는 없을 것이다. 2012년 12월 18일 KT에스테이트 노동조합의 1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2대 째 조합을 이끌고 있는 류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 늘 편안히 열려있음을 각인시킨 선구자다.

“KT라는 거대한 군함을 떠나 KT에스테이트라는 새로운 배로 갈아탄 지 벌써 4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갈등과 분열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관계로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인간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류위원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다. 당시 KT노동조합 5대 중앙전화국지부 홍보부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간게 99년까지. 2005년에는 자산개발단지부 사무부장 등을 거쳐 이후 9대에는 자산센터지부 지부장, 2012년에는 10대 본사지방본부의 정책국장으로서 활동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 KT에스테이트로 분사돼 나오면서 1대 노동조합을 이끌게 되었다.

“KT에스테이트 노동조합 1대 위원장으로 취임한게 2012년 12월 18일입니다. 250명이던 직원은 노동조합 설립 후 320명까지 점차 늘어났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컸어요. 힘들게 넘어온 만큼 회사도 노동조합도 탄탄하게 가고 싶었고, KT와 함께 가는 문화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만큼 경영자들도 조합을 이해해줬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역시 디딤돌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제서야 돌이켜 보면 조합원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과 안도감도 든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유덕 사무처장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조합원을 먼저 배려하는 위원장을 항상 옆에서 바라보며 감동 받는다”고 털어놓는다. 해마다 교섭 때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다보니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한마디로 조합원들



을 향해 문턱을 낮춘 것이 신뢰를 구축하는 힘이 되었다. 이금자 여성국장은 “위원장님은 ‘원 보이스! 원 팀!’을 강조합니다. 위원장을 대면하기는 어렵다는 마음의 거리를 벗어나 지금은 조합원들도 편히 전화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위원장님이 되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선진화된 종합부동산 회사

KT에스테이트는 국내 유일한 종합부동산 기업으로 2010년 설립 이후 2012년 KT로부터 2조의 현물출자를 받았다. 현재 임직원 수는 312명, 종합부동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국내여타 회사들도 치고 나오는 현실이지만 이미 선점한 KT에스테이트의 자리를 넘보기에는 역부족. 특히 지난해 프리미엄 기업형 임대주택인 동대문 리마크빌을 론칭하고 올해 안으로 4개 사이트 총 2,231세대를 오픈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2013년 영업매출 2,529억에서 2016년에는 3,887억으로 성장해 매년 KT그룹 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이야말로 KT에스테이트의 강점. 임주열 대의원은 자신이 한화로부터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데에 이런 이유가 크다고 했다.

“부동산회사가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리스크에 강하죠. 업체들 간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 운영 수주는 어려워요. 개발과 기획에 임대, 시설관리, 매입 매각사업까지 할 수 있는 KT에스테이트는 그야말로 선진화된 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업계 활용사례는 당연히 KT에스테이트를 선두로 발생한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이제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회사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고비도 많았다. 무엇보다 특별 명퇴라는 난제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류위원장의 마음은 아쉬움을 넘어선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간부들한테는 내색도 못했죠. 힘들게 같이 넘어 왔는데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류위원장은 1년에 두 번 지역순회를 한다. 한 번에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전과 건강도 신경 써야한다. 더구나 회사와 직급이 다른 외부로부터 온 많은 직원 구성 상 모든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 첫째 통합된 복지에 비해 임금 부분은 간부들의 대화와 노력에 힘입어 작년예야 정리가 됐다. KT에스테이트는 실무교섭에 대의원들도 간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점이 특별하다. 조합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날 때가 가장 즐겁다는 류위원장은 만들어 가야 할 많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작년에 지역 조합원 부부 5쌍을 본사로 초청했습니다. 대표와 식사도 하고 건물 투어도 했는데 참 좋았어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보다 활성화된 노동조합을 위해 전열을 다지는 간부들의 파이팅도 남다르다.

염인식 조직국장은 “미우나 고우나 조합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노동조합”이기에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해법을 찾아 발전해가는 노조”를 염원한다. 그리고 10여 명 간부들의 류위원장을 향한 당부의 목소리는 한 줄로 귀결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열린 선장이 되어주길. 그래서 조합원 스스로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를. 이렇듯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동지들을 향해 류재영 위원장 또한 다부진 화답의 메시지를 약속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위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꿈꾸던 모습을 하나씩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KT그룹 내 구심점이 되는 KT에스테이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SSUE & SOCIETY

사드보복 장기화 울상 짓는 IT업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IT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가전 분야는 시장점유율이 바닥을 치는 반면,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위주의 B2B 분야는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제주도는 매우 한산한 모습이다. 평소라면 성산일출봉 주차장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타고 온 버스로 꽉 차 있어야 하지만 일본어나 동남아시아어 외에 중국어는 들리지 않는다. 국내 관광업계가 한바탕 흥역을 치르는 사이 중국 본토에서는 롯데를 겨냥한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불매운동은 지난 2월 지린성 롯데마트 앞에서 20여 명 중국인들의 시위를 계기로 촉발됐다. '사드 지지하는 롯데는 중국을 떠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SNS에 퍼지며 준안, 베이징, 우시 롯데마트, 선양 롯데백화점 등에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현재 롯데마트는 소방 및 위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9개 지점이 중국 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는 파란 불, IT 가전은 빨간 불

전문가들은 사드보복의 여파가 관광, 유통에 이어 자동차와, 가전, IT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중국 수출량은 지난해 전 세계 수출량의 23%와 21.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내 자국 브랜드를 제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어 다행히 사드와 관련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IT를 포함한 가전제품은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삼성은 2015년 중국에서만 30조 원의 높은 매출을 올렸다. 이는 삼성이 전 세계 가전시장에서 거둔 매출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20%에 달하는 유럽 매출(38조6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삼성은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8과 QLED TV에 대한 전 세계 동시 출시를 앞두고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이다. 삼성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중국 토종 브랜드인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의 공세로 최근 3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13년 6250만 대가 넘었던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4년에는 5850만 대로 6.4%로 감소했다. 문제는 그 후부터다. 삼성은 지난 2015년에 전년 대비 43%나 급감한 3320만 대를 판매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또 29% 감소한 2360만 대에 그쳤다. 앞선 데 덧붙여 중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입지가 줄어들어 동시에 사드 보복과

지 겹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다.

LG 역시 전망이 어둡다. LG는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 0.1%도 미치지 못해 신제품 프로모션을 아예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월 새롭게 출시된 G6 스마트폰을 중국에만 수출하지 않기로 해 중국 내 한국산 스마트폰의 위상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풍지대' 반도체와 파산 직전의 게임업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생활가전과 달리 B2B 분야는 '무풍지대'라 할 만큼 조용하다. 중국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한국산 의존도가 높아 선불리 사드 보복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삼성과 SK가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사드 보복을 이유로 불매운동을 하면 중국 내 어마어마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국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자충수를 초래할 수 있다.

게임업계도 사드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3월 텐센트, 넷이즈, 360 등 중국의 메이저 게임유통업체들은 '한국산 게임 수입이 불가하다'는 한마디 짧은 내용의 서신을 국내 게임업계에 발송했다. 이는 '한국산 게임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니 수입을 불허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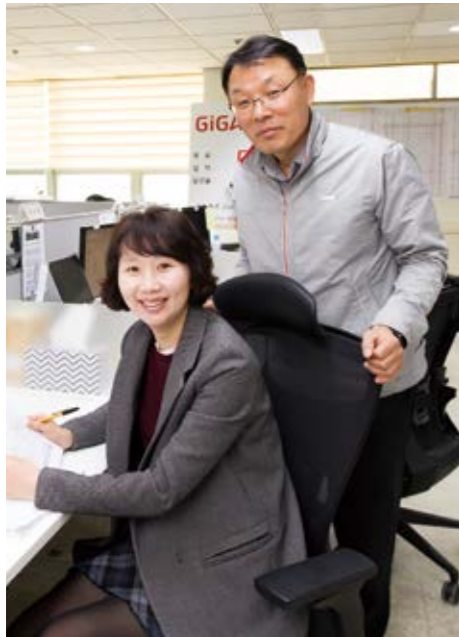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산 모바일게임에 대한 '판호제(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스마일게이트와 웹젠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대표적인 한국 게임기업인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이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뜸한 사이 한국 게임을 모방한 중국 게임사들의 짝퉁게임이 시장을 교란하고, 흥행주기가 짧은 모바일게임은 파산과 같은 돌이키지 못할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IT업계 전반에 비추어 볼 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가전업계는 점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분야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부품을 수출하는 거대 기업과 달리 사드 보복이 장기화됐을 때 소규모 게임업계가 입을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KT노동조합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을 가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4대 복지공간 환경개선사업이 조합원들의 호응 속에 올해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변화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작은 힐링의 공간으로까지 재탄생된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높아진 복지 체감도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공간 리모델링과 더불어 사무 가구 및 집기류도 교체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로 공간도 사람도 환해진 두 지역을 방문했다.



충북지방본부 KT충주사옥

“업무 집중도
높아지니
퇴근도 빨라지는
기분

오수환, 박상옥 조합원

영업기획팀 소속인 오수환, 박상옥 두 조합원은 환경 개선으로 인한 변화가 정말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 시즌마다 자리배치하면서 난감했는데 작년에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심플하게 개선됐습니다. 과거 이곳을 한번이라도 다녀간 분들은 훨씬 더 환해 보인다고 좋아해요. 외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변화가 많다고 느껴요. 분위기가 밝아지니 모두들 일의 집중도가 높아져 능률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두워서 눈도 침침했는데 조명도 LED로 바뀐 후부터 덜 피로해요. 체력단련실과 샤워장의 조명,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사무함에 블라인드까지 싹 바뀌었죠.”

4대 복지 공간 이른바 구내식당, 샤워실, 체력단련실, 화장실의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해 3월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의 안건 중 하나로 의결된 사항이다. 당시 4월 이틀에 걸친 노사합동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5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됐는데, 조명 및 불량시설을 교체하고 천장과 바닥, 벽면을 도색하고 수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옥별 상주 직원 150명 이상의 대형 사옥을 선정 기준으로 이곳 충주를 비롯해서 구미, 익산, 강릉 등 총 54개 사옥에 걸쳐 집중 개선됐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충주사옥은 화장실과 샤워실, 구내식당 내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특히 체력단련실의 공간을 확장해 탁구대와 당구대를 설치했다. 여기에 체력단련실 역시 조명이 LED로 교체된 것은 물론 천장을 보수하고 벽체도 환하게 도색했다.

또 이번 복지환경개선과 때를 맞춰 이루어진 사무환경 개선과 노후된 사무집기류 대개체도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 역시 조합원들의 근로환경 불편을 해소하자는 지난해 4분기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무집기의 노후도와 사옥 내 근무인원을 고려해 책상과 개인 사물함, 의자 등을 교체 추진, 지난해 51개 사옥 103개 지부에서 3,000세트가 교체됐고 이어 올해도 7,000세트가 교체를 진행 중이다.

충주지부는 사전 공급사와 규모에 따른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사무 집기류를 교체한 3일을 합하면 총 공사는 9월 약 한 달에 걸쳐 마무리됐다. 12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충주지부에서 사무실 집기 교체는 무려 30년, 에어컨은 25년 만의 새 단장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환하게 바뀐 사무실이다. 어둡고 칙칙한 책상과 파티션으로 중압감이 느껴졌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흰색의 밝아진 사무실로 출근할 때면 표정도 자연스레 밝아진다. 두 조합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보니 능률이 많이 올라서인지 출근도 퇴근도 빨라지는 느낌”이라며 집중이 잘되니 시간마저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웃음 짓는다.

충주지부 최재용 지부장은 화장실과 휴게실의 LED전등은 형광등을 사용했을 과거에 비해 전기 절감효과가 뛰어나 절전을 위해 예전처럼 굳이 한 시간씩 꺼놓지 않아서 효과는 배가된단다.

“점심시간 이후 급한 용무로 들어왔을 때 불이 꺼진 상태면 눈이 침침했었지만 지금은 늘 켜져 있으니 눈도 훨씬 덜 피로해요. 과거에는 조직개편 때면 책상을 들고 다니며 뒤죽박죽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바뀐 환경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체력단련실. 새로 설치된 탁구대와 당구대 앞에는 점심시간마다 이용하려는 조합원들이 줄을 선다.

“만들기 전에는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자기 관리 차원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과거와 달리 윗분들과도 자유롭게 탁구와 당구를 칩니다.”

오수환 조합원은 탁구는 조금만 늦어도 자리가 없을 정도란다. CS 직이나 현장에서 늦게 들어온 조합원들도 이제 건강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찾아 운동할 만큼 활성화 되었다.

끝으로 두 조합원은 한 가지만 더 개선된다면 바랄 게 없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통신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주지부가 유선으로 일하고 있는 비효율적 업무환경을 감안해, 무선으로 바뀐다면 긍정적 변화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합원들은 작은 변화에도 감동합니다. 환경개선사업처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본부 KT북대구사옥

직장생활, 할 맛 납니다!

이준형, 육상욱 조합원



북대구사옥이 새로 단장된 것은 올해 1월 13일이다. “사무집기, 화장실 환경, 헬스장과 탁구장, 구내식당 등 전체적인 게 바뀌다보니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조합원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다들 표정도 밝아지고 사무실 분위기에 맞춰 패션도 멋지게 바뀌었어요.”

대외협력업무를 맡고 있는 육상욱 조합원은 바뀐 근무환경에 대한 조합 내 긍정적 변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북대구사옥은 지난해 사무공간집중화(거점빌딩) 사업이 추진되어 업무/복지공간 리모델링, 전체 사무집기류 대개체가 시행되었다. 사무공간집중화 거점사옥 구축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2015년에 먼저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사무실을 구성하고 설비와 집기를 교체하는 한편 무선랜을 설치해 업무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것, 둘째는 공간과 비용 효율화를 위해 외부에 임차 중인 부서를 입주시켜 팀을 재배치해 임차비를 절감하고, 마지막으로 수평적 좌석 배치와 복합기 사용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네트워크 거점 55개, 영업본부 거점 12개, 영업지부 거점 54개 중 두 개 이상 거점이 중복되는 30개 빌딩이 추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었다. 북대구사옥은 상주 직원 수와 노후도, 자가 빌딩 여부 등을 고려한 선

정 대상 중 하나로, 이에 따라 남구 봉덕동에 자리했던 대구고객본부가 현재 북대구사옥으로 이전 재배치되면서 조직이 집적화된 상태. 기존 대구유선운용센터지부 150명의 인원에 이전 해 온 대구고객본부를 합쳐 북대구사옥에는 현재 총 374명이 근무한다. 북대구사옥은 3개 층에 걸쳐 이중마루를 철거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등 기존 기계실을 통합사무실로 전환했다. 또 화장실, 샤워실, 회의실 그리고 사무실 내 전구를 LED로 교체하고 카페 분위기의 고객 접견실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구내식당은 기존 공간을 확장하고 좌석을 추가로 늘이는 한편 화사한 색상의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해 분위기를 살렸다. “근무 층이 달랐을 때는 업무 협업을 위해 다른 층으로 가야했는데, 이제 통합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니 신속합니다. 부서 이기주의도 많이 개선된 데다 바로 지척에서 어떻게 일하는 지를 서로가 알게 되니, 힘든 부분은 기꺼이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사무실 내에는 기존 딱딱했던 파티션 자리를 대신해 예쁜 실내공기정화 화분들이 놓여 부서별 자연스러운 시선 차단 효과까지 연출한다.

사업지원팀 이준형 조합원은 통합사무실이라 팀원들 간 협의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면이 있어 때로 불편하

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말한다.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문 간 협업이 잘 돼요. 물론 성과적인 부분에서 노출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는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1층에서 6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몰랐던 타부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즐겁다. 게다가 지하 1층의 구내식당에서는 아침마다 누룽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구내식당은 업무를 떠난 또 다른 소통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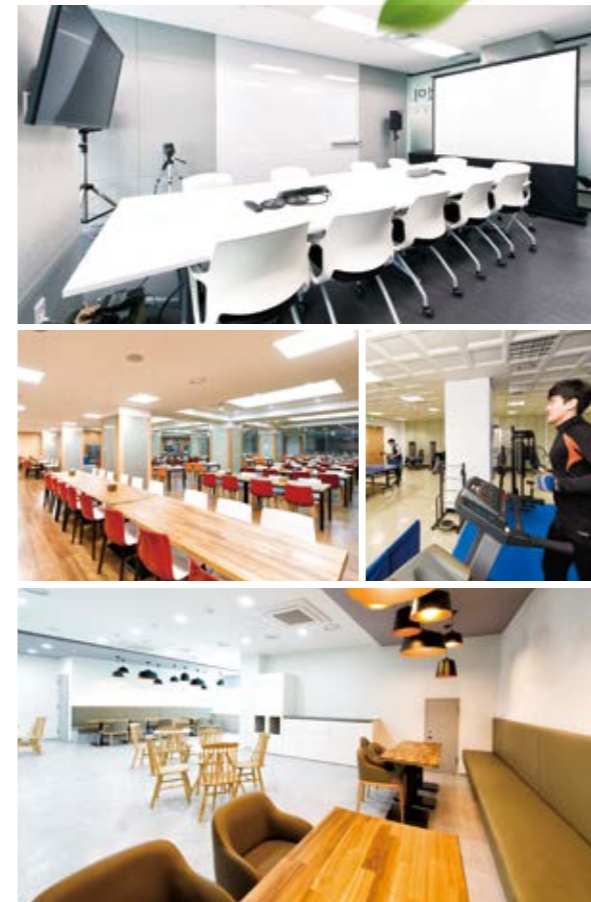
여느 헬스클럽 못지않은 각종 운동기구들과 밝은 조명, 깨끗한 샤워시설로 새 단장한 체력단련실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여과를 책임지는 인기장소로 탈바꿈했다. 출근 전 매일 두 시간씩 이곳에서 운동 하고 깔끔하게 샤워를 마친 뒤 구내식당에서 누룽지로 식사 후 근무에 임하는 조합원도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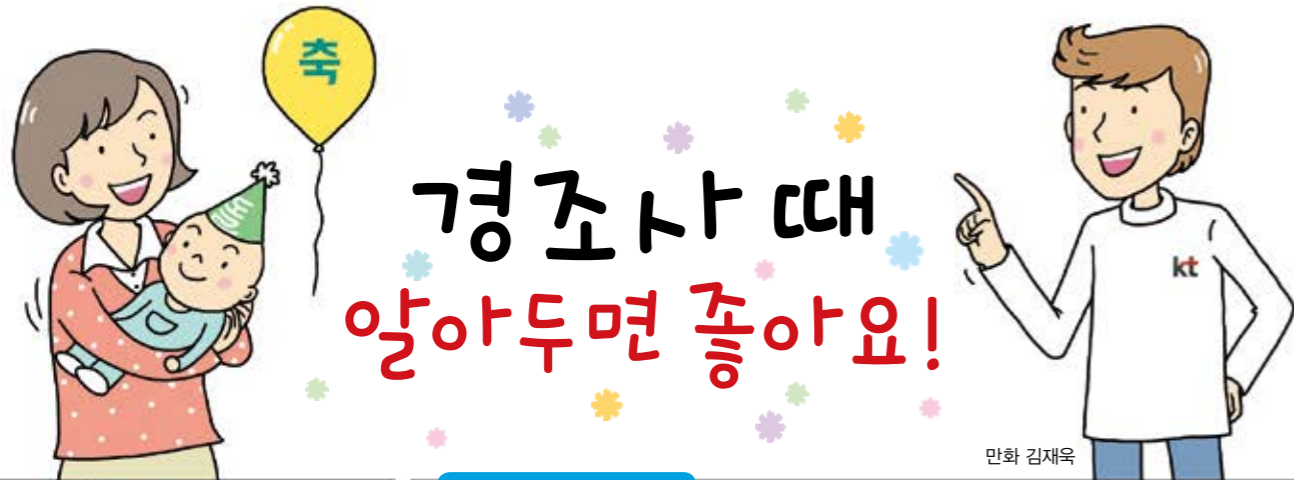
“예전에는 헬스기구도 두 개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 갖추어져 굳이 돈 들여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온수 시설에 스킨, 로션까지 구비해 줬으니 너무 좋습니다. 사물함도 손잡이나 바퀴가 없는 것도 많았는데 이번엔 다 개선돼 파이팅 할 기분이 납니다. 예전처럼 편의점 도시락 먹을 일도 없어졌고 말이죠. 그리고 통합사무실이라 다른 부서가 가면 퇴근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니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집중이 잘 되니 지루하게 업무 시간을 늘이는 일도 없어졌죠.”

이준형, 육상욱 조합원은 이 모든 만족스러운 변화 뒤 노동조합의 수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한 가지, 이처럼 동일 공간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만큼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비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은 미세먼지 탓에 문을 개방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두 사람에게 ‘사무실 내 모든 이들과 빠짐없이 소통의 자리를 가지자’는 새로운 목표까지 안겨주었다. 이를 통해 동료 간의 유대를 쌓고 정보도 나누며 다이나믹한 대구본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현재의 이 활기찬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그들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빠를지도 모른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통합사무실인 만큼 개인적으로든 팀으로든 조합원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가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들을 배워가며 내공을 쌓아 대구본부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글로벌 KT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때 알아두면 좋아요!

만화 김재욱



경조금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지급처	
경사	결혼	직원 및 직원 자녀 결혼 시 50만원 (상호부조와 중복지급 가능)	복지기금
	회갑/칠순/팔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or 칠순 or 팔순 시 택일 30만원 - 회갑(만60세), 칠순(만69세), 팔순(만79세)	복지기금
	출산	자녀 출산 시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복지기금
애사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50만원 * 상호부조와 중복지급 불가 (상호부조 2회 이상 수혜시 50만원 지급) - 본인의 조부, 조모, 사망 시 50만원(외가 제외)	복지기금
	본인/배우자 사망	- 본인 재해 및 배우자 재해·질병 사망 시 1억원 - 본인 재해사망 외(단체보험 미적용) 사망시 1억원 * 배우자 자살 시 200만원	단체보험 복지기금 복지기금
	교통사고 사망	본인 교통사망 시 5,000만원	단체보험
	재해장애	본인 및 배우자 재해장애 시 장애등급에 따라 최고 1억원	단체보험
	암진단	본인 및 배우자 암 진단 시 1,500만원	단체보험
	주택파손	자가 : 1/3~완전파손시 350만원~1,000만원 전세 : 1/3~완전파손시 100만원~200만원	복지기금
	주택침수	부분~완전침수 200만원~300만원	복지기금
	결혼	본인 자녀	7 1
	회갑/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상	배우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6	
	승중상	6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1	
	배우자	1	
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	
	배우자(처)	5	
	여직원 출산 전후	90 (~69)	
	여직원 출산 전후(태아)	120 (~89)	
	임신 28주 이상 유/사산	90 (~69)	
기타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사산	60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사산	45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사산	10	
	임신 1주 이내 유/사산	5	
	태아 검진 휴가	월 1	
수재, 화재 등 중대재해	3		
인색년	-		

신청 방법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경조금



청원휴가 제도 ※ 청원휴가일은 휴일·휴무일 포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회갑/칠순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상	배우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6
	승중상	6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1
	배우자	1
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
	배우자(처)	5
	여직원 출산 전후	90 (~69)
	여직원 출산 전후(태아)	120 (~89)
	임신 28주 이상 유/사산	90 (~69)
기타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사산	60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사산	45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사산	10
	임신 1주 이내 유/사산	5
	태아 검진 휴가	월 1
수재, 화재 등 중대재해	3	
인색년	-	



다운플랜 이용법 1577-1555(1~3)

1번	상조서비스 이용 (장례 관련 문의)	① 상조이용 ▶ 본인의 사원번호와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일치 시 상조서비스 이용 가능 ② 용품신청 ▶ 사원번호와 성명, 소속, 전화번호 확인 후 재직자와 퇴직자를 구분하여 장례用品 및 근조, 축하회환 지원
2번	웨딩서비스 관련 문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동시에 예약!
3번	회원관리	가임, 해지, 상조이용, 청산관련으로 상담사 연결



ERP → HR → 개인업무 → 복무/출장 → 복무 → 휴가

10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빨간 옷의 IT천사들



2007년 IT나눔의 씨앗을 뿌리다

지난 2월 21일 KT스퀘어 드림홀에서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IT서포터즈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KT 임직원은 물론 회사 내 IT 및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자리를 가졌다. 조명이 꺼지고 지난 10년 동안 IT서포터즈가 걸어온 모습이 프로젝트 화면에 표출되자 참가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KT의 IT서포터즈가 출범한 것은 10년 전인 2007년이다. 당시 100메가 광랜의 보급으로 초고속 유선인터넷 시대가 개막됐지만 사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보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었다. 국민 IT기업을 자처하는 KT는 계층 간 정보격차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 IT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공헌활동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나눔활동에 나선다. IT서포터즈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체크, PC 청소 등의 컴퓨터 관리에서부터 어르신들에게 휴대폰 활용법을 교육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왔다.

산골 오지부터 아프리카 르완다까지

이듬해인 2008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사회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컴퓨터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IT 자격증 취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태블릿교육을 커리큘럼으로 신설해 프로그램 세분화를 기한다. IT서포터즈는 또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를 목표로 소셜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보화 격차를 줄이려는 KT의 노력은 극빈층에게까지 이어졌다. 쪽방촌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IT교육과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음성으로 지원하

첨단 인터넷시대의 어두운 그늘과도 같은 정보소외계층. 빈곤, 교육 격차, 문화적 조건 등의 이유로 정보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KT는 10년째 한결같은 나눔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빨간펜 선생님'으로 통하는 IT서포터즈가 가는 곳마다 어두웠던 소외의 그늘에 환히 빛줄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는 보이스오버 교육을 통해 정보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꾸준한 기여를 해왔다.

2012년은 IT서포터즈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화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글로벌 IT교육을 진행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어느 IT기업도 시도하지 못하는 글로벌 IT나눔활동을 KT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맞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왔던 KT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IT서포터즈의 역사는 유니폼에도 반영되어 있다. 10년 동안 모두 아홉 번이 바뀐 IT서포터즈의 유니폼은 초창기 하늘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및 치마였다. 2008년에는 보라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2010년에는 남자는 하늘색, 여자는 빨간색 상의를 입다가 2010년에는 남녀 모두 검은색 상의로 통일된다. 2012년에는 회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다가 검은색 상의와 회색 하의로 반전을 주었고, 현재는 깔끔하고 강렬한 느낌의 빨간 셔츠와 링타이가 IT서포터즈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교육 수혜자들로부터 '빨간 옷 선생님' 혹은 '아이패드 선생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사의 노력으로 향후 10년을 그린다

출범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재편된 IT서포터즈 시스템은 더욱 업그레이드됐다. 그룹 내 11개 계열사가 지닌 각자의 깊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IT 전문 인력이 풍부한 KTds와 KTh는 어린이 코딩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금융계열인 BC카드사는 어린이 금융교육을 맡도록 했다. KT파워텔과 KT링크는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응급처치교육을, KTCS와 KTIS는 스마트폰 교육 및 수화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KT스카이라이프와 KTh는 방송중계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기로 했다. KTSat은 위성관제 현장 체험과 모형로켓 제작교육을, KT파워텔은 무전기 사용 및 IT 기기 실습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IT서포터즈는 앞으로 일선 학교와 연계해 더욱 세분화되면서도 융합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중학교 자율 학기제 및 초중고 여름방학 특강으로 진행되며 각 그룹사의 체험 전시관 등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IT서포터즈는 대한민국은 물론 정보화에서 소외된 전 세계 곳곳을 돌며 지난 약 30만 건의 IT 교육을 수행하고 약 320만 명의 교육 수혜자를 배출해왔다. 정보소외층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IT 서포터즈의 노력은 앞으로도 10년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주요 발자취

<p>IT나눔의 첫발,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클리닉부터 시작(바이러스 체크, PC청소) • 어르신 휴대폰 활용 및 장애인 IT 교육으로 사회적응 지원 		<p>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SNS 마케팅 교육 지원</p> <p>Smart Divide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p> <p>건강한 스마트문화 캠페인</p>		<p>드림스쿨 글로벌 멘토링 온라인 교육</p> <p>ICT를 통한 생활혁신 교육 (기가스토리)</p>
<p>2007~2008</p>	<p>2009~2010</p>	<p>2011~2012</p>	<p>2013~2014</p>	<p>2015~2016</p>
	<p>다문화 여성 취업을 위한 IT 자격증 교육</p>		<p>첨단 IT기기(Smart Divide) 지식 나눔</p> <p>동자동 쪽방촌에 ICT로 자립자활 교육</p> <p>글로벌 IT나눔(르완다)</p>	



KT 위즈 2017 시즌이 설렌다

창단 후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던 KT 위즈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4월 셋째 주 현재 6월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그동안 신생팀의 약점을 딛고 선두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수들과 구단의 의지가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을 들썩이게 하는 야구 붐

요즘 수원은 한창 야구 붐이 일고 있다. 주말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야구장을 찾은 가족들과 저녁 데이트 겸 찾아온 연인들의 응원대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수원야구장에 관중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연고팀인 KT 위즈의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다. KT 위즈는 지난 3월 31일 통신회사 라이벌인 SK를 상대로 홈 개막전 승리를 거두며 연속 3연승을 달렸다. 4월 4일에는 작년 우승팀인 두산에게 0:2 아쉬운 패배를 겪은 이후 두산과의 재경기를 이기고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홈에서 스윙하며 다시금 4연승을 행진을 이어갔다. 사실 KT는 창단 이후 줄곧 꼴찌를 도맡아하는 '동네북'이나 마찬가지였다. 기량이 채 다음어지지 않는 어린 선수들과 2군 위주로 주전이 구성된 탓에 완성도 높은 시합을 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으며, 다 이긴 경기라 할지라도 빈약한 볼펜이 경기를 뒤집어 놓는 그야말로 '말아먹은' 시합이 한둘이 아니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몇몇 스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팬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신인과 고참, 시련탑 빛어내는 시너지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쇠신하기 위해 KT구단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코칭스텝의 개편이다. 조범현 감독 후임으로 두산 베어스 출신의 김진욱 감독을 영입하며 팀을 리빌딩한다. 김 감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산 베어스를 이끈 명장으로 이광길, 김용국, 김광림 등 코치진과 함께 선수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코칭스텝의 인적쇄신은 팀 분위기를 확실하게 개조시켰다. 개막 전 시범 경기에서 KT를 만난 상대팀 선수들은 "KT의 팀 컬러가 확실히 변했다", "덕아웃의 분위기가 매우 적극적이다"라며 달라진 KT의 모습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KT의 적극적인 분위기는 시범경기 5연승을 달리며 시즌 개막 후 펼쳐질 KT의 변화를 예고했다.

2017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KT 위즈는 통신 라이벌 회사인 SK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둔다. 돈 로치에서 시작해 정대현, 라이언 피어밴드에 이르기까지 제 몫을 착실히 소화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볼펜도 3경기 동안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았다. 바로 지난 시즌 5.92의 방어율을 보이며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KT 마운드는 누가 언제 그랬냐는 듯 1.0대의 자책점을 보이며 시즌 초반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타선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고참과 신인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정현, 심우준 등 기대주들이 존재감을 알림과 동시에 박기혁, 이진영, 유한준 등 베테랑의 활약이 더해져 타점을 차곡차곡 올리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선수 모넬의 가세로 화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근성과 패기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

임종택 단장



Q. 이번 시즌에 임하는 다짐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A. 단장 부임 후, 주위에서 신생구단으로 근성과 패기 있는 야구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감독 역시 선수들과 즐기는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야구를 목표로 당장의 성적보다 중장기적으로 강 팀이 되기 위한 '팀 문화'를 만들고 있죠. 성적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착실히 강해지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선수 층 강화, 즉 육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Q. 지난 시범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해서 이번 시즌 탈 꼴찌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번 시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구단을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A. 물론 순위도 중요하지만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동을 드리는 야구를 함으로써 연고지인 수원뿐 아니라 다른 구장에서도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단과 프런트가 One-Team이 되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으며, 'Go Together!'라는 구호도 만들어 각 중 미팅 때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서로 함께 갈 때 구단 시너지가 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KT 위즈는 아직 신생구단인 만큼 분위기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우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감독 및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나요?

A. 매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성 있는 플레이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비중이 높은 우리 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장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스포츠는 경기 결과를 알 수 없고 승패 여부를 떠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팬들은 열광하리라 생각합니다.

Q. KT 위즈를 응원하는 조합원 및 노동조합 집행부/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KT의 이름을 드높일수 있도록 재미있고 멋진 경기를 하겠습니까. KT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interview

신바람 야구의 중심

김진욱 감독



Q. 2017 시즌에 임하는 감독님의 출사표가 있다면?

A. 무엇보다 신나는 야구를 하고 싶습니다. 순위나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신나는 야구를 하다보면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팬 여러분들이 KT 위즈가 꼴찌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는 그 예상을 반드시 깨고야 말겠습니다.

Q. 감독님이 강조하시는 '인성, 근성, 육성'의 야구는 무슨 의미인가요?

A. 젊은 선수들은 신나는 팀 분위기를 통해 창의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Q. 개막 3연승이 말해주듯 KT의 변화가 대단해 보입니다. 마치 마법과도 같은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KT의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선수들이 패배의식에 젖지 않도록 스프링캠프 때부터 팀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즐겁게 플레이하다보면 승수는 자연스레 쌓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감독과 코치의 능력으로만 팀 전력을 끌어올리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나오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Q. 올 시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A.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노라 선수들과 약속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KT는 분위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압박감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Q. 감독님에게 야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A. 프로야구의 핵심은 바로 '팬'입니다. 팬들이 즐기고, 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야구를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통해 팬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KT 위즈를 응원하는 조합원들에게 전할 말은?

A. KT를 대표하는 만큼 KT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 노동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구장도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interview

노련함으로 연승을 이끌다

주장 박경수



Q. 주장으로서 시즌을 맞이하는 소감은?

A. 작년엔 개인 성적이 좋았지만 팀 성적은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주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팀 분위기를 다져놓고 다음 주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싶어요. 올 시즌 김진욱 감독님과 함께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팀 성적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Q. KT 돌풍이 불고 있는 현재,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가요?

A. 예전에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지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수들이 서로를 다독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스프링캠프를 거치며 팀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Q. 만년 꼴찌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KT 위즈의 올 시즌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이제는 정말 신생팀의 약한 이미지를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올해 최하위만큼은 벗어나서 팬들이 수원 KT 위즈파크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멋진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Q. 박경수 선수에겐 그동안 완벽한 기량을 갖춘 성남고의 전설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으며 긴 시간을 이겨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야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더욱 업그레이드 된 나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 2017 KBO 리그 경기 일정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롯데	3 롯데	4 롯데	5 한화	6 한화	
7	한화	8 KIA	9 KIA	10 KIA	12 NC	13 NC	
14	NC	15 롯데	16 롯데	17 롯데	19 넥센	20 넥센	
21	넥센	22 삼성	23 삼성	24 삼성	25 두산	26 두산	
28	두산	29 SK	30 SK				

6 Jun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SK	2 롯데	3 롯데
4	롯데	5 LG	6 LG	7 LG	8 NC	9 NC	
11	NC	12 삼성	13 삼성	14 삼성	16 한화	17 한화	
18	한화	19 롯데	20 롯데	21 롯데	23 SK	24 SK	
25	SK	26 한화	27 한화	28 한화	30 넥센		

7 Ju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넥센
2	넥센	3 두산	4 두산	5 두산	6 두산	7 KIA	8 KIA
9	KIA	10 삼성	11 삼성	12 삼성	13 올스타	14 올스타	
16		17 LG	18 LG	19 LG	20 넥센	21 넥센	
23	넥센	24 두산	25 두산	26 두산	27 NC	28 NC	29 NC
30	NC	31					

8 Aug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KIA	2 KIA	3 KIA	4 SK	5 SK	
6	SK	7 롯데	8 롯데	9 KIA	10 KIA	11 SK	12 SK
13	SK	14 LG	15 LG	16 삼성	17 삼성	18 두산	19 두산
20	두산	21 한화	22 한화	23 NC	24 NC	25 삼성	26 삼성
27	삼성	28 NC	29 NC	30 한화			

*우천 취소된 일정은 정규일정 이후 재편성 됩니다.

외롭다고? 동고동락하는 '반려 로봇' 시대가 온다

2013년 개봉된 SF영화 '그녀(Her)'에서 편지 대필 작가인 주인공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운영체제(OS)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다. 사만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람의 감성까지 이해하는 인격체로 주인공을 만나면서 점차 진화된다. 생활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관리해주는 영화 속 이런 상황은 AI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혼밥'과 '혼술'이라는 트렌드로 대변되는 1인 가구 증가 시대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개인용 로봇은 머지않아 가정의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로봇과 산책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사진출처_ 영화 'her' 스틸컷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이 바둑 대국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에 졌을 때 세상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통념을 무너뜨린 기계의 '똑똑함'에 충격을 감수해야 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식활동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 돌이켜보니 인공지능(AI)은 벌써 몇 년 사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기원이라 보는 1950년대 체스 프로그램 게임의 경우는 깊은 사고가 아닌 단순 대응과 판단에 불과했다. 1989년 IBM이 인공지능 Deep Thoughts를 만들어 체스 챔피언 카스퍼로프에게 도전했을 때만해도 사람의 완승이었다. 1996년 마침내 Deep Blue가 등장해서야 1승2무3패로 인간을 이긴 최초의 컴퓨터가 됐고, 이후 2011년 IBM은 슈퍼컴퓨터 '왓슨'으로 언어를 분석하는 퀴즈쇼에도 도전해 승리했다.

현재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세계 로봇시장은 제조나 농업 등 단순 산업의 응용에서부터 서비스 로봇으로 중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AI음성인식 스피커다. 아마존의 '에코', 구글의 '구글 홈'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KT의 '기가 지니', SKT의 '누구', 네이버의 '아미카' 등이 경쟁 중이다. 문자로 대화하는 '챗봇'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답변이 가능해 금융권 등에서도 활용한다. 통·번역의 경우, 구글은 AI 인공지능경망 도입으로 성능을 향상시켰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한컴이 각각 '파파고'와 '지니톡'에 이 기술을 도입했다.

가정용 집사로봇, 교육 로봇, 재활훈련 로봇, 무인비행 로봇, 물류운반용 로봇, 재난구조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이미 개발됐으며, 청소로봇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의 변화 추세는 이러한 로봇 시장의 경쟁을 한층 가속화시킨다.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는 등 과학자들은 반려 개념의 로봇이 앞으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리라 전망하는 가운데, 미쓰비시 연구소는 2020년이면 1가구 1로봇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분석했다.



AI 로봇의 활약상은 어디까지인가

최초의 가정용 로봇은 2014년 미국 MIT가 개발한 '지보'다. 인지능력을 갖춘 '지보'는 가족 구성원의 얼굴을 인식하고 음성 명령으로 움직이며 집안 통신기기와 연동돼 TV채널이나 컴퓨터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 한 발 나아가 감정까지 파악하는 로봇은 2015년 일본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페퍼'가 최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탑재한 '페퍼'는 다양한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에 따라 반응하며 슬퍼하면 위로도 한다. '페퍼'는 일본에서 현재 슈퍼, 은행, 피자가게에서 일하고 특히 노인들을 돌보는데 두각을 드러내 노인시설에서 교감하면서 약 복용시간이나 방법 등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인공지능 닥터 '왓슨'은 전문의들도 몰랐던 난치병을 밝혀내 환자의 목숨도 구했다. '왓슨'의 암 진단을 정확도는 90%가 넘는다. '왓슨'은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학습해 환자 수천 명의 사례에 적용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데, 국내는 길병원이 최초로 도입했다. 또 '왓슨'은 법률분야에 활용돼 관련 법 조항이나 과거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신임 변호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해 2015년 세계 재난구조로봇대회에서 우승한 '휴보'처럼 지진 등 긴급 재난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재난구조 로봇도 AI기능을 강화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토양과 대기, 해양 오염감시도 앞으로는 로봇이 맡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1인 남성 가구를 겨냥한 가상아내도 등장했다. '게이트박스'라는 이 로봇은 작은 피규어같은 홀로그램 입체 캐릭터로, 모닝콜도 해주고 우산도 챙겨주고 함께 차도 마신다.

이 뿐인가. 로봇은 예술 창작에까지 업적을 쌓고있다. MS의 인공지능 '넥스트 램브란트'는 딥러닝으로 학습한 화가의 화풍을 질감마저 그대로 재현할 정도다. 초보적이긴 하지만 구글에서는 80초짜리 피아노곡 '마젠타'를 공개했고, 일본에서는 AI가 쓴 단편소설이 호시 신이치 공상과학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체되는 일자리로 사회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옥스퍼드대 연구자들은 2020년까지 일자리의 47%가 AI로 대체될 것이라 내다본다. AP와 야후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자 '워드 스미스'는 기상예보나 주식 또는 보험관련, MLB 경기평 등 2014년에만 무려 10억 개의 기사를 써냈고, LA타임즈의 '레이크봇'이라는 지진 보도 전문 로봇기자의 기사작성은 지진 발생에서 보도까지 불과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머지않아 의사의 역할도 알고리즘으로 대체 될지 모른다. 활발한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는 대목이다.

가족과 공동체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시대. 노인은 손자를 대신해 로봇을 의지하고 친구로 삼는 현실이다. 새로운 미래는 어쨌든 반드시 온다. 가깝게 혹은 멀리 다가올 그 앞날이 풍요롭고 가치 있을지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로봇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두근두근 설렘이 머무는 곳

조화와 공존의 나라, 타이완 자유여행

언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기가 싫더니 마른 가지 끝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고들 한다. 똑같은 일상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실감하는 것이 계절의 변화 같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이다. 익숙해진다든가 새로이 않다는 것, 더는 새로울 것 없는 것이 늙음이다. 새로움을 찾아 낯선 풍경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일, 그 속에서 다시 젊음을 체험하는 것. 여행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안식년 휴가를 위한 자유여행 시리즈, 세번째 목적지는 타이완이다.

중국이면서 중국이 아닌 나라. 오랫동안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자 50년을 일본 식민통치 아래 있던 나라. 열대, 난대, 온대성 기후가 공존하는 섬. 타이완은 중국 객가문화와 타이완섬, 중국 본토의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해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만들어졌다. 그로 인해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건축, 음식과 생활 방식이 큰 틀 안에서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도시 문명과 대자연,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풍성하고 다채로운 매력이 탄생했다. 평화로운 휴식과 두근대는 설렘이 가득한 곳, 타이완으로 떠나보자.



Travel Tip

타이베이 인근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다. 타이베이 중심에서 약 40Km 떨어진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타이베이 도심과 가까운 '송산공항'이다. 타이베이를 통해 타이완에 입국한다면 <인천-타오위안> 노선이나 <김포-송산>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타오위안 노선은 하루 10편 이상의 직항편이 운항되고 김포-송산은 5편 가량이 운항되고 있다. 비행에는 평균 2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1NT\$(신타이완달러)는 약 38원.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늦다.



타이완 여행의 첫 관문, 타이베이

타이베이는 타이완 북부에 있는 도시로, 사실상 타이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타이베이 101'은 높이 509미터, 101층으로 타이완의 대표적인 마천루다. '타이베이 세계금융 센터'가 정식 명칭이지만 '타이베이 101'로 더 유명하다. 2010년 1월 3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었다. 낮에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밤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한다. 타이베이의 명소, 스린 야시장은 타이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인기 시장이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다양한 먹을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가득하다. 고궁박물관은 타이베이 여행의 필수 코스다. 소장 유물 수가 약 69만 점으로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로 손꼽힌다. 타이완 초대 총통이었던 장제스를 기리기 위한 중정기념당도 놓치지 말자. 새하얀 아치 위에 푸른색 지붕의 명나라식 정문이 특히 인상적이다. 넓은 정원 위에 대리석 기념관이 서 있고 정자와 연못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타이베이에서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타이베이에서 꼭 맛봐야 3가지 음식으로 샤오롱바오, 망고빙수, 뉴러우몐(牛肉麵, 소고기면)이 꼽힌다. 용캉제에 가면 모두 맛볼 수 있다. MRT 동먼(東門)역 5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거리로 이동하면 된다.

Tip 타오위안 공항에서 타이베이 시내로 이동할 때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Bus to City' 혹은 '市區巴士', 'Express Buses' 표지판을 따라 버스 티켓팅 카운터에서 발견하면 된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까지 1819번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송산공항은 타오위안 공항보다 시내와 훨씬 가깝다. 송산공항은 대만 전철 MRT가 연결되어 있어서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공항 출국장 16번 출구로 나와, 지하에 있는 MRT역으로 가면 인포메이션 센터나 편의점에서 이지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이지카드는 MRT, 버스, 페리, 기차(일부 구간)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다. 자동매표기에서 1회 승차권을 발급할 수도 있다.



1. 타이베이 타이베이101
2. 홍사오 뉴러우몐 3. 샤오롱바오

자연이 빛은 경이로움, 화롄

화롄은 타이핑시의 중앙횡단고속도로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다. 타이완의 5대 국제항의 하나이며, 타이완 100대 준봉 중 하나인 타이루거 협곡의 거점이기도 하다. 타이루거 국가공원은 웅장한 대리석 협곡으로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거대한 협곡을 따라 깎아지른 절벽, 동굴 터널, 대리석 계곡과 그 사이를 흐르는 계곡물이 절경을 이룬다. 특히 주취동(九曲洞)은 타이루거 협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산과 절벽 사이를 뚫은 굽은 도로와 깊은 협곡이 굽이굽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타이루거 협곡을 찾은 여행자라면 장춘사와 선광사 보도를 빼놓을 수 없다. 1.35km에 걸친 이 길은 편도 약 1시간 이 소요되는 인기 트래킹 코스다. 관음동 동굴을 지나 작은 터널을 통과하면 장춘사가 눈 앞에 나타난다. 장춘사 왼편의 정자 아래로 석회 동굴에서 흘러 나오는 세찬 물줄기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춘사 폭포의 장관을 연출 한다. 장춘사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대리석 계곡답게 타이루거 협곡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다. 장춘사를 지나 산 허리를 갈지자로 잇는 계단을 오르다 보면 선광사에 닿을 수 있다. 약 20분 정도 더 걸으면 푹티엔씨엔푸 동굴의 불상과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Tip 타이베이에서 화롄까지 열차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2~3시간이면 화롄역에 도착한다. 장장 10시간에 걸친 산악열차(Mountain Line)도 있다. 타이베이에서 화롄행 일반열차를 타면 된다. 타이완 철로국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타이완철로국 <http://www.railway.gov.tw/ko/> (한국어 지원) 타이루거협곡을 여행할 때는 화롄 기차역에서 텐상(天祥)을 왕복하는 타이완호행버스(Taiwan Shuttle Bus)를 이용하자. 타이완의 유명 관광지 부근의 철도, 고속철도, 터미널 등지에서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다.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면 버스가 정차한다. 정류소 표지판은 눈에 띄게 디자인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타이완호행버스 [http:// kr.taiwantrip.com.tw/all](http://kr.taiwantrip.com.tw/all) (한국어 지원)



1. 화롄 타이루거
2. 가오슝 등불축제
3. 타이난 웨라오마오



4. 가오슝 E-DA아울렛몰

역사와 전통의 문화 도시, 타이난

타이난에서는 대도시의 자동차 행렬 사이로 때때로 소달구지가 지나다니는 평화로운 소읍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간직한 이 곳은 타이완의 옛 수도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다. 타이난의 전통을 상징하는 문, 아치, 성채의 흔적과 300년 넘는 사원들이 타이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타이난에 있는 300여 곳의 사원들은 타이완에 깃든 중국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남문로의 공자사원과 청나라 관리들이 군신에게 의식을 지내던 복로의 관우사원, 그리고 대청후궁은 타이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힌다. 개산로에 있는 정성공사원은 1661년에 침입한 네덜란드를 격퇴한 명나라 애국지사들을 기념하고 있다. 녹이문 근처에 있는 마주사원과 성모사원도 인상적이다. 고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발달해온 타이난의 미식문화는 여행자들의 미각을 충족 시킨다. 식빵 속을 파낸 뒤 고기로 속을 채운 토스트 관차이반(棺材板), 옛날 어부들이 먹던 도사오웨 단짜이멘(度小月擔仔麵), 타이완식 쌀떡국, 쌀푸딩, 뽕장어 국수, 투명한 고기만두 등 타이난 명물 요리가 가득하다. 소북야시장이나 중국타운 내 시장 거리에 가면 이 음식들을 모두 맛볼 수 있다.

Tip 타이베이에서 타이난까지 타이완 고속철도 HSR을 이용하면 1시간 50분 내에 도착한다. 대만 고속철도 홈페이지에서 한달전에 미리 예약하면 최대 35%까지 얼리버드 할인을 해 준다. 타이완 고속철도 <https://irs.thsrc.com.tw/> (한국어 지원). 또는 kkday 사이트를 이용하면 20% 외국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www.kkday.com/ ko/product/2674](http://www.kkday.com/ko/product/2674) (한국어 지원) 가오슝에서 타이난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 가오슝에서 타이난까지 해안열차(Coast Line)와 산악열차(Mountain Line)등 다양한 철도 노선이 운행한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도착한다. 타이완 철로국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타이완철로국 [http:// www.railway.gov.tw/](http://www.railway.gov.tw/) (한국어 지원)

따듯한 남국의 정취가 가득, 가오슝

가오슝은 타이완 경제 무역의 중심지다. 시내 중심가에는 85층 뚝뚝 빌딩과 50층의 창구 세계무역빌딩 등 마천루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다. 무엇보다 가오슝 사람들은 타이완 남부 특유의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하다. 손님맛이를 좋아하는 천성으로 가오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아이허(愛河) 일대는 여러차례 개보수 공사를 거치며 항구도시의 우아한 풍치를 더했다. 연안을 따라 펼쳐진 허뽁공원과 이곳의 야경은 여행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원소절의 등불축제나 단오절 드래곤보트 축제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한다. 2001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등불축제는 가오슝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다. 신쿠장상권, 싹뚜어상권 등 대형 백화점과 각종 상점들이 모여있는 상업 거리는 가오슝에서 꼭 들러야 할 쇼핑 명소다. 예술가들의 거리 보얼예술특구와 치허우 등대마을도 놓치지 말자. 리우허야시장, 신신야시장, 치진해산물거리는 풍부한 먹을 거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다양한 요리는 아무리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단,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Tip 인천에서 가오슝까지 매일 8편의 직항편이 운항한다. 3시간이면 가오슝에 도착한다.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가는 방법도 있다. 타이베이에서 HSR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이베이-궈밍> 구간을 선택하면 된다.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하면 최대 3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kkday 사이트에서는 20% 외국인 할인도 해 준다. 가오슝에서의 이동은 쥘링(捷運) MRT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본사지부 경제경영연구소 박재형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운전면허 시험, 세법/대출법 개정 등 2017년 달라지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해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도 한 번씩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nfra연구산지부 이종경

17년도 새로이 바뀐 인사제도에 대해 만화로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이해가 아주 좋았고 KT그룹사에 대한 소개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김윤옥

'여행지' 소개가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했던 곳도 다시 읽다 보니 그 때의 감동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부천시지부 김연규

이번 소식지에서는 이슈&사회란의 "우리세대에게 직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읽고 미래에 사라질 현재의 직업군과 또 새롭게 자리잡을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녀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의미가 깊었다고 느낍니다.

네트워킹관제센터지부 나중용

항상 소식지 새희망의 '길'을 읽으며 회사 안의 갖가지 이슈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제도 등을 카툰을 활용해서 알기 쉽게 표현해주는 점이 좋습니다. 이번 호의 기획특집에서는 창립기념행사 대신 봉사활동을 하며 건강한 K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훈훈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무선운용센터지부 이두진

평소에 여행에 관심이 많아 일본 자유여행에 대한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직장인이 언제나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일본인데 주요 도시에 대한 사진과 팁을 보며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택지부 이원형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수 있어 참 유익하였습니다. 최신기술, 문화광장, 복지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외계층 사회공헌 활동 등...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소식지 "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강서무선운용센터지부 김성환

창립 35주년의 행사를 사회공헌활동으로 대체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진 복지, 보수 및 인사제도를 알기 쉽게 요약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지부 남신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보수, 인사제도가 만화형식으로 게재되어 이해하기 쉬웠으며 PC통신인 하이텔 기사를 보면서 밤늦게 PC통신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기기 인터넷이 출시되어 속도나 접속이 안정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속도가 느리고 접속 끊김이 많아 여러 번 접속하고 재부팅하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될 때 영화 "접속"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대구고객본부지부 정환선

먼저, 창립 35주년을 맞은 KT노동조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길' 소식지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복지부터 여행 길잡이까지(이번 샛포로 여행 내용을 보니 내년 겨울에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KTTU NEWS 및 카툰을 활용한 쉽고 재미있는 KT의 복지이야기 등 유익한 소식 많이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KTTU QUIZ

			세로1																		
								세로2													
	가로1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그룹사이며, 부동산의 가치와 도시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국내 최초 종합부동산회사는? (12페이지 참고, 한글)

세로 1 2007년 출범 이후 IT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KT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22페이지 참고, 한글)

세로 2 타이완 북부에 있는 도시로 사실상 타이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는? (31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로,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